



주간통일정세 2010-09(2010.02.22~02.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09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北, 전국기자언론인대회 개최(2/22, 연합뉴스)
  - 북한당국은 22일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기자언론인대회’를 열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팔수가 될 것”을 촉구
  - 북한이 전국기자언론인대회라는 명칭의 대회를 연 것은 처음
  - 약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조선기자동맹대회를 통해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 2001년 11월 기자동맹 8차 대회를 끝으로 언론인 관련 ‘대회’를 연 적도 없음.
  - 북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대회 참석자들에게 ‘기자·언론인들은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이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당의 사상과 의도, 노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노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출판보도활동을 벌이는 것은 언론건설의 철칙”이라며 “총진군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말함.
  - 또 “당의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 영도의 현명성에 대한 선전”과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전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언론은 전함.
  -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는 보고를 통해 “기자·언론인들은 대고조의 제1나팔수, 대적 언론전을 벌여나가는 투사가 되며 붓과 마이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위할 것”을 촉구했고, 김기룡 노동신문 책임주필은 김 위원장에 대한 ‘위대성’ 선전에 주력할 것을 다짐
  -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중린·김기남 비서와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 모범 기자·편집원·방송원들, 중앙과 지방의 당사상사업 부문 일꾼들, 조총련의 기자언론인들이 참가
- 北중앙통신 사장에 김병호 임명(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신임 사장에 김병호 부사장이 승진 임명
  - 김병호 신임 사장은 최근 전임자인 김기룡 사장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장 겸 책임주필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명된 것으로 보임.
  - 김기룡 전 중앙통신 사장이 노동신문 책임주필로, 김병호 전 부사장이 중앙통신 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북한의 3대 언론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은 조선중앙TV의 상품광고로 차승수 위원장이 해임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만 남게 됨.



- 北김정일, 설 이후 9일간 6차례 공연관람(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2.14) 이후 거의 매일 공연을 관람
  - “김정일 동지께서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이 예술소조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농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 평양시내 대학들이 망라됐다고 보도
  - 이 통신은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이하 보도날짜 기준) 은하수 관현악단의 ‘설 명절 음악회’, 17일 10215군부대(국가안전보위부 대외 명칭) 예술선전대와 인민군 소속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18일 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21일 인민보안성 협주단 첫 공연을 각각 관람했다고 전함.
  
- 국정원, 김정일-현안해결에 초조감 피력(2/23, 연합뉴스)
 

(가족의존 늘어…얼굴에 얼룩 제거, 김정은-정책관여 단계로 발전, 화폐개혁으로 총체적 후유증 직면)

  - 국가정보원은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상과 관련, “유훈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자탄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힘.
  - 원세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이런 현상으로 북한 내부 정책 추진의 난맥상이 심화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정진섭,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함.
  
- 北, 탈북단속 대폭강화…함북 ‘도강지역’ 집중(2/23, 좋은벗들)
  - 걸어서 도강하기 쉬운 함경북도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지난달 27일 중앙당이 가족 도주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함경북도의 중국 국경지역에 대해 2월 한달간 집중 숙박검열을 한다는 방침을 시달렸다”면서 “이에 함경북도 도당은 2월 들어 보안기관과 국경 경비대 합동으로 집중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올해부터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도강자(탈북자)가 발생하면 소관 당 비서, 행정책임자까지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
  
- 김정일 ‘상호주의’ 언급 10년만에 보도(2/24, 우리민족끼리)
  - 2000년 9월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상호주의’에 대해 “서로 배워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우리민족끼리’가 24일 뒤늦게 전해 주목
  -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주시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년여 전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공존, 공영, 공리를 해서 두 제도가 존재하는 연방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힘.



- 비록 10년 전 일이지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상호주의에 대해 다소 포용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기는 이번이 처음

● 北, 3.1절 맞아 日에 과거청산 촉구(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일본당국은 과거청산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그 해결에 한시바빠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
- 대책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제는 1919년 조선인의 평화적 독립시위를 말살하기 위해 10여만명을 학살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조선 민족을 상대로 일제가 저지른 갖가지 집단학살과 강제연행,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원한은 오늘까지도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책동으로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김정일동향

- 2/21, 새로 조직된 인민보안성협주단 첫 공연 관람(2/21,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黨부장)·강능수(\*前 문화상을 黨부장으로 임명), 주상성(인민보안상), 리병삼(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과 함께 관람
- 2/23,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 관람 및 黨중앙위 名義 「감사」전달(2/23,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주규창·이제강·이재일(黨 제1부부장들) 등 黨중앙委 책임간부들과 공연 관람

■ 기타동향 (대내 정치)

- 북, 당 선전선동부장에 강능수 임명한 듯(2/22, 중앙일보)

나. 경제 관련

● 北, 위화도·황금평 개발권 中에 넘겨(2/23, 연합뉴스)

- 북한이 압록강의 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위화도와 황금평의 개발권을 중국 기업에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대외개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단둥과 접경한 압록강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5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짐.



- FAO, 北-식량 125만t 부족…외부조달 8% 불과(2/23, 미국의 소리 (VOA))
  - 북한은 올해(10월 결산 기준) 125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4분기 3개월간 외부에서 들여온 물량이 전체 부족분의 8%에 불과, 올해 식량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외부로부터 확보한 곡물은, 직접 구매한 1만t과 외부에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전달된 ‘인도주의적 지원’ 9만1천t 등 모두 10만1천t”이라고 보도
  
- 모습 드러내는 北경제개발 계획(2/24,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달 중순 국가개발은행의 출범을 계기로 선보일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은 두만강개발 계획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투자를 먼저 이끌어내고 서방국가들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골자로 보임.
  - 두만강 하구 개발을 축으로 라진을 석유·천연가스 공급기지로, 청진은 제철·중공업·중기계 단지로, 그리고 김책·신의주·함흥·원산·남포 등을 지역 거점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라고 원산대풍국제그룹 관계자는 설명
  - 특히 개발계획이 주력할 분야는 우선 철도·도로·항만·공항·전력·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과 농업부문인 것으로 알려짐.
  - 조선대풍 관계자는 SOC 건설 계획은 시간을 두고 제시할 예정이며 농업부문은 유엔 기구 및 유럽연합(EU)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 北국가개발銀 3월 중순 출범…자본금 100억弗(2/24, 연합뉴스)
  - 북한은 두만강개발을 축으로 해 라선(라진+선봉)-청진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의주·함흥·김책·원산·안주·남포 등의 지역 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이런 경제개발은 국가개발은행이 주도하되 이 은행에 외자를 유치할 조선대풍국제그룹이 집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전망
  
- 北김정일, 상반기내 국가식량공급 정상화 지시(2/23,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안에 무조건 국가식량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고 ‘NK지식인연대’가 2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지난달 말 평양에서 열린 ‘경제일꾼 협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식량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가 북한내 모든 무역 기관과 외화별이 기관에 식량수입 확대 ‘명령’을 하달했다고 이 단체는 소개





- 北·中 잇는 신 압록강대교 10월 착공(2/25,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지난해 방북 당시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신 압록강대교가 오는 10월 착공될 전망
  - 중국 랴오닝(遼寧)성은 오는 10월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 인입도로 공사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신 압록강대교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이 전함.
  - 심양만보(瀋陽晚報)도 이날 “신 압록강대교 건설이 올해 단둥시의 중점 업무에 포함돼 있다”며 “10월 착공을 목표로 측량과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
  
- 北, 외국인 ‘무현금 행표’ 사용 의무화(2/25, 미국의 소리(VOA))
  -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의 외화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무현금 행표(수표)’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보도
  - 지난달 29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앞으로 외화 대신 ‘무현금 행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통고했다면서, 이 ‘무현금 행표’는 “현금과 맞바꿀 수 없고, 지정된 용도에만 쓸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평양의 외국인들은 외화를 조선무역은행에 입금한 뒤 행표를 받아 각종 공과금을 내고 생활필수품을 사야 하는데, “집세와 식비, 난방비, 교통비, 연료비, 통신비, 전기와 수도사용료, 사무용품과 자동차 부품 구입비, 각종 등록비, 호텔 이용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방송은 밝힘.

#### ■ 기타동향 (대내 경제)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1월 계획을 공업총생산액 108.1%, 선철 101.5%, 강철 101.6%, 압연강재 103% 등 수행하며 “대고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고 고무추동(2/19, 조선중앙통신)
- 평양방직공장의 컴퓨터망에 의한 종합조종체계 완성, 선교편직공장 등의 내의류, 셔츠, 양말 본격 생산, 신의주화학공공장의 가루비누 생산 등 “北 경공업부문이 개술개건과 신제품 개발에서 혁신적 성과 이룩” 보도(2/23, 조선중앙통신)
- 북 식량난 극심…중서 수입 급증(2/25, 동아일보)
  - 대북소식통, 대도시도 배급 제대로 안돼…영양실조 사망 증가
- 北-中, 2.25 「압록강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2/26, 조선중앙통신)
  - 단둥시에서 北 박길연(외무성 부상)과 ‘오해룡’(中 외교부 부장조리) 협정문 서명
- 2/25, ‘전국 농업대회’ 평양에서 개막(2/2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영일(내각 총리)·이용무(국방위 부위원장)·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곽범기·박명선·박수길(내각 부총리들, 곽범기 보고) 및 道黨 책임비서들·근로단체 일꾼 등 참가



#### 다. 사회·문화 관련

- 손소독제 20만ℓ 北전달…전염병예방 도움되길(2/23, 연합뉴스)
  - 정부는 23일 오전 북한의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손소독제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
  - 25t 트럭 25대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손소독제 10억원 어치(20만ℓ)를 나눠 싣고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으로 향함.
  - 이번 지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말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치료제 지원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직접적인 인도적 물자지원
  - 앞서 정부는 이번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78억원 사용을 의결한 뒤 지난해 12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음.
  
- 北, 미국인 관광객 체류 제한 풀어(2/24,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문호를 계속 넓히는 가운데 최근 4박 5일간의 체류 기간 제한도 풀었다고 보도
  - 북한 여행 전문인 미국 일리노이주 아시아태평양여행사의 위니 루 부대표는 VOA와 인터뷰에서 월터 키츠 대표가 지난주 방북해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앞으로 미국인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함.
  
- 北올림픽팀 간부, 최선 다했지만 노메달 아쉬워(2/24, 자유아시아방송(RFA))
  - 고철호 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가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고 전함.
  
- 北, TV연속극 ‘봉산탈춤’ 제작(2/26, 조선중앙TV)
  - 북한의 국가영화위원회 텔레비전극 창작단이 최근 TV연속극 ‘봉산탈춤’을 제작했다고 보도
  -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연속극은 “남녀 주인공의 곡절많은 운명선을 통해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면서 봉산탈춤을 민족의 재부로 되살린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업적을 극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고 전함.
  
- 北 밴쿠버 동계올림픽 첫 보도…노메달 함구(2/28, 조선중앙TV)
  -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과 남자 피겨스케이팅 싱글에 단 두 명의 국가대표를 출전시킨 북한이 28일 올림픽 소식을 처음 전하면서 자국 선수들의 성적은 언급하지 않음.
  - 조선중앙TV는 이날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국체 체육 소식’ 코너에서 밴쿠버 올림픽 일부 경기 결과를 전함.



- 中, 4월부터 북한 단체관광 전면 허용(2/28, 연합뉴스)
  - 중국이 오는 4월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다고 무한만보(武漢晚報)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
  - 그러나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통해 단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수속 절차는 여전히 까다로움.

#### ■ 기타동향 (대내 사회·문화)

- 국가인권위, 탈북여성 인권침해 실태 조사(2/23, 세계일보)
- 제3국 체류중 인신매매, 성폭력 시달려 등

#### 라. 6자회담(북핵)동향

- 北, 평화협정·비핵화 동시 의제화 주장(2/26, 연합뉴스)
  -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의제화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지난 9~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 협의에서 북한이 그 같은 입장을 내놓았으며 조건이 수용되면 6자회담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함.
  - 북측이 그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태도변화가 있어 보임.
  - 중국은 지난 9~1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을 통한 북·중 회담에서 북측이 전한 이런 메시지를 23~25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전달하고 ‘조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일단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과 한.미간 ‘간극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北 2004년 美핵전문가에게 플루토늄 공개(2/2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04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권위있는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플루토늄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남.
  - 로스 알라모스 미 국립핵연구소장을 지낸 헤커 교수는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물리학회 세미나에서 자신의 방북경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확인
  - 미국물리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요지에 따르면 그는 2004년 1월 방북 당시 영변 재처리 시설내 추운 회의실에 앉아있던 중 북한의 기술자로부터 “우리는 핵역지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었으며, 헤커 교수가 미심쩍은 표정을 짓자 북한 기술자들은 “우리가 생





산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느냐”고 의향을 물었고, “플루토늄을 말하는 것이냐”는 헤커 교수의 관심표명에 대해 “맞다, 그거다”라고 답한 뒤 잼용기와 같은 병에 담긴 플루토늄 샘플을 가져다 보여 줬다는 것

- 헤커 교수는 이들 물질의 무게와 온기를 파악해 진짜 플루토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기술자들의 허락을 받아 200g의 플루토늄이 담긴 용기를 들어본 결과, 방사선으로 인해 온기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루토늄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함.
- 그는 또 지난달 발표한 ‘북한 핵위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1,2차 핵실험 결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탄급 위력을 지닌 단순한 형태의 플루토늄탄을 만들 능력이 있으며, 현재 그같은 초보적인 핵무기를 4-8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 기타동향 (6자회담(북핵))

- 6자회담 당사국 ‘빨라지는 행보’(2/24, 경향신문 등)
  - 위성락-보즈위츠 방중, 우다웨이와 회동/북 김영일도 방중...‘회담 재개’ 외교전

## 2. 대외정세

- 남아공, 지난해 11월 北 무기수출품 압수(2/23, 연합뉴스)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해 11월 의심 화물을 실은 아프리카 중서부 콩고행 선박을 수색, 북한의 군용 T-54와 T-55 탱크 부품 화물을 압수했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
  - 지난주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화물의 운송업자는 북한 회사로 돼 있으며, 화물은 처음에 중국에서 선적된 뒤 말레이시아에서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선박으로 옮겨졌고, 선적서류상엔 “불도저 예비 부품”으로 기록돼 있었음.
  - 압류한 북한의 탱크 부품이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월 스트리트 저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역할의 이슈화에 나섬. 이와 관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알고 있으며,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언급은 피함.
- 北외무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2/27, 조선중앙통신)
  - “궁석용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최근 북한과 중국이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교차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외무성 대표단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러시아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임.

#### ■ 기타동향 (대외)

- 루마니아 외무성 대표단/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2/23 평양 도착(2/23, 조선중앙통신)
  - 루마니아 외무성 대표단, 2/25 평양 출발(2/25, 평양방송)
-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에리크 라로쉐), 2/23 평양 도착(2/23, 조선중앙통신)
  - 만경대와 국제친선전람과 참관(2/25, 조선중앙방송)
- 中, 北에 세습반대.개방.핵포기 압력(2/23, 아사히신문)
  - 중국이 작년 5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에 개혁개방, 세습반대, 핵포기 등을 요구했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
- 北김영일 당 국제부장 베이징 도착(2/23, 연합뉴스)
  -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김 국제부장을 영접/김 국제부장을 포함한 북한 노동당의 방중 대표단은 13~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 北김영일, 中동북서 잇단 '경험 행보'(3/1, 연합뉴스)
  - 라오닝 이어 지린 방문..압록강.두만강 협력개발 논의

### 3. 대남정세

- 北, 키 리졸브 연습 강행시 군사적 대응(2/25,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북한이 내달로 예정된 한·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 하면서 강행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연습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면서 "필요시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 수단을 동원해 침략의 아성(중심부)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형체없이 만들) 것"이라고 밝힘.
  -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사시 한국 방어 목적의 작전훈련인 연례 '키 리졸브' 연습을 3월 8~18일 남한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
- 北, 불법입국 南주민 4명 단속-조사중(2/26,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최근 해당 기관에서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했다"며 "단속된 남조선 주민들은 현재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남한 주민들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이후 정부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 평양과 금강산, 개성과 기타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북측 발표와 관련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함.
- 정부가 북한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주민은 26일 오전 현재 개성공단 983명, 금강산 46명, 평양 8명(대북 지원단체 월드비전 대표단), 해주 모래채취 인원 17명 등 총 1천54명
- 정부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의 남한 주민 체류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어, 북한이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이 이 ‘1천54명’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임. 현대아산 관계자도 “오늘 오전 금강산과 개성 현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측 인원의 변동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북측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중 접경지역에서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북한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을 통해 남한 주민이 불법 입북한 경우 조사를 거쳐 중국쪽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입국’이라는 표현을 쓴 중앙통신의 보도 태도로 미뤄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

● 北매체, 3.1절 맞아 남북협력 촉구(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언론매체들은 1일 3.1절을 맞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
-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9월 제안한 북핵 해법이자 이번 3.1절 기념사에도 담은 대북 메시지 키워드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자주화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3.1절 기념사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면서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전함.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반외세자주정신으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라는 기념 글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사상과 선군정치에 빛나는 결실”이라며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

● 남북실무접촉, 3월 2일 개성 개최(2/28, 연합뉴스)

- 남북은 28일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군사 실무회담을 형식을 바꿔 남북실무접촉 방식으로 다음 달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국방부는 이날 “남북이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절충을 벌인 결과 3월2일 오전 10시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측은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 소속 중령급 실무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할 것”, “수석대표가 통일부에서 나가는 만큼 회담은 군사실무회담이 아니라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이라고 밝힘.
- 북한은 22일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군사실무회담을 3월 2일 개성공업지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열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온 바 있음.

■ 기타동향 (대남)

- ‘무엇을 노린 인권법 조작책동인가’ 題下 南 국회 「外統委」의 ‘북 인권법’ 통과 관련 “북남대결을 목적으로 한 대결선언”이라고 再次 경고 (2/24, 평양방송)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고위당국자 “6자회담 3, 4월 재개 전망”(2/28)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 “최근의 정황증거를 볼 때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로 본다면 3, 4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북한이 언제쯤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보장이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얘기한대로 미·북접촉을 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미·북 추가접촉이 이뤄진다면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이 언제쯤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추가 북미대화의 분명한 조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추진 중인 방미를 추가 북미대화와 연결지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학계쪽에서 김계관 부상에게 올봄 뉴욕을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했다”며 “(추가 미·북접촉이) 김 부상이 학계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할 때 이뤄질지, 별도로 베이징에서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협의를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美 “수주내 6자회담 재개 가능성..北에 달려”(2/27)

-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결단에 따라 빠르면 수주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장관급 전략대화 후 ‘북한이 회담으로 돌아올 진전의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진전의 징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현재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핵심은 북한이 실제로 의무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은 북한 쪽 코트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6자회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진입로를 찾기 위해 중국, 한국, 일본, 러시





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그들이 약속했던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음.

#### ● 클린턴 “6자회담 재개 진전 징후 고무적”(2/27)

-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후 열린 ‘포토 스프레이(사진촬영을 겸해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기회)’에서 “궁극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북한의 결정에 달렸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이 회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진전의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성 김 북핵특사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파트너들이) 공동노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관계는 튼튼하고 지속적”이라며 “한국이 역내는 물론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음.

#### ● 中 “6자회담 난관 벗어나 진전기회”(2/25)

- 중국 외교부는 25일 “6자회담이 난관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음.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달 초 북한과의 교차 방문 이후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대표단에게 북·중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친 대변인은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담하고 나서 오늘 오전에는 양제츠 외교부장과 만나 6자회담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음. 이어 친 대변인은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노력과는 별개로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에는 계속 참여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음.

#### ● 클린턴 “北 도발에 일치된 대응 이뤄”(2/25)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대응에 유례없는 일치를 이뤄냈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2011 회계연도 외교정책 우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문은 열어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그동안의 성과를 전했다.

- 클린턴 장관은 또 이란에 대한 제재 추진에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는 매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 美 “北 6자회담 복귀 확고한 신호 기대”(2/25)

- 미국 국무부는 24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확고한 신호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건설적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고한 신호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관리들과 양자대화를 가질 계획은 여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 ● 위성락 北京 도착..한·중 북핵협약(2/23)

-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본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 취재진에게 중국으로부터 북·중간 논의 결과를 청취하고 6자회담 복귀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 본부장은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중요한 양자협의를 가진 후여서 한·중간 협의를 할 특별한 때”면서 “우선 중국 측의 얘기를 들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다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날 오후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을 통한 북·중 협의결과를 청취하고 6자회담 조기재개 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위 본부장은 그러나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위 본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으로 향하기 전 외교부 청사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는 후에 평화협정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그 입장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4일 오후 귀국하는 위 본부장은 중국을 거쳐 서울을 방문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25일께 서울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 6자절충 주목..‘비핵화-평화회담 병행’ 조율될듯(2/23)

- 중국이 최근 북·중 협의결과를 토대로 6자회담 재개조건에 대한 북·미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마련, 한·미·일·러 등 나머지 4자 당사국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중의 ‘교차방문’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조건과 관련해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이에 따라 중국을 주축으로 한 6자회담이 조기 재개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중국이 6자 수석대표들의 베이징 연쇄접촉 기회를 활용해 각측의 간격을 좁히려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북·중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냈으니까 각측에게 일정한 양보를 할 것을 제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경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성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대동하고 24일 오후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위 본부장과 보즈워스 대표는 방중기간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각각 만나 북·중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 대표는 이 자리에서 ▲평화협정 회담 ▲대북제재 해제 여부 등 6자회담 재개조건을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북한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선(先) 평화협정 회담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이 선행돼야 논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유엔 1874호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도 평화협정 회담은 비핵화 논의와 병행해 탄력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중 협의과정에서 북한에게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며 북한측도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불능화 조치를 복원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가 전제돼야 비핵화-평화회담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나. 미·북 관계

#### ● 스탠퍼드대, 北 결핵연구소 설치 지원(2/26)

- 북한 보건당국과 미국의 역학 전문가들이 북한에 내성 결핵 연구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미국 스탠퍼드대 소



- 식지인 ‘스탠퍼드 리포트’는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스탠퍼드대 역학 전문가인 세런 페리 박사를 비롯한 미국 의료 연구팀이 최근 북한을 방문, 내성 결핵 연구소 설치 사업에 착수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 1990년대 ‘대기근’ 재앙을 겪은 북한에서 결핵이 재발된 가운데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내성이 있는 결핵을 진단, 처방하는 전문 연구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나선.
  - 스탠퍼드 리포트에 따르면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번 지원 작업은 미국 연구기관과 북한 보건 당국 간의 ‘전례없는 수준’의(unprecedented level)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했음. ‘결핵 진단(TB) 프로젝트’로 명명된 북한 내 내성 결핵 연구소 설치 작업은 모든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프로젝트는 페리 박사가 소장으로 일하는 ‘실리콘밸리 TB 컨소시엄’, 핵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워싱턴의 비영리기관인 ‘핵위협이니셔티브’(NTI)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페리 박사는 “새 연구소는 북한 결핵 통제 프로그램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北 2004년 美핵전문가에게 플루토늄 공개”(2/26)

- 북한이 지난 2004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플루토늄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로스 알라모스 미 국립핵연구소장을 지낸 헤커 교수는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물리학회 세미나에서 자신의 방북경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확인됐음. 그는 2004년 1월 방북 당시 영변 재처리 시설내 추운 회의실에 앉아 있던 중 북한의 기술자가 “우리는 핵역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헤커 교수가 미심쩍은 표정을 짓자 북한 기술자들은 “우리가 생산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느냐”고 물었고, “플루토늄을 말하는 것이냐”는 관심표명에 대해 “맞다, 그거다”라고 답한 뒤 잼용기와 같은 병에 담긴 플루토늄 샘플을 가져다 보여 줬다는 것임.
- 헤커 교수는 이들 물질의 무게와 온기를 파악해 진짜 플루토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기술자들의 허락을 받아 200g의 플루토늄이 담긴 용기를 들어본 결과, 방사선으로 인해 온기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루토늄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음.
- 헤커 교수는 북한이 자신에게 플루토늄 샘플을 보여준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통해 미국에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했음.
- 그는 또 지난달 발표한 ‘북한 핵위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1,2차 핵실험 결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탄급 위력을 지닌 단순한 형태의 플루토늄탄을 만들 능력이 있으며, 현재 그같은 초보적인 핵무기를 4-8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견제가 없었다면 북한은 현재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헤커 교수는 2004년 방북을 포함해 지금까지 6차례 북한을 다녀왔다. 그는 지난달 미국 에너지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엔리코 페르미 상’을 수상했다.

#### 다. 중·북 관계

##### ● 中, 4월부터 북한 단체관광 전면 허용(2/28)

- 중국이 오는 4월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다고 무한만보(武漢晚報) 등 중국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중국 국무원이 최근 북한과 태평양 서북부 섬나라인 미크로네시아 등 2곳을 단체관광 허용 대상지로 새롭게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들이 오는 4월 12일부터 북한 단체관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중국 당국은 북한 관광에 나서는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 열풍이 불자, 2006년 2월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가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초부터 제한적으로 북한 관광을 허용했다. 이 조치로 지난해 5월 상하이에서 20여 명의 관광객이 선양(瀋陽)을 경유해 북한 관광에 나섰으며 단둥(丹東)과 투먼(圖們) 등에서 비자 없이 간단한 수속만으로 북한 변경지역을 여행하는 변경관광도 재개됐다.

##### ● <北 김영일, 이례적 中 랴오닝 방문>(2/27)

- 김 부장을 포함한 북한 방문단이 지난 26일 왕민(王珉) 랴오닝성 서기와 만나 양측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왕 서기는 랴오닝성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뒤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류와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김 부장도 “랴오닝성과 지속적으로 친선 교류 및 협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은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차기 주북대사로 내정된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도 배석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그의 친서를 갖고 온 것으로 관측되는 김 부장이 랴오닝성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양측의 압록강 유역 협력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에 앞서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중국 우하이룽(吳海龍)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25일 단둥(丹東)에서 단둥-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북한과 합의한 이 다리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 심양만보(瀋陽晚報)는 지난 25일 신 압록강대교가 늦어도 오는 10월 착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 “北·中 잇는 신 압록강대교 10월 착공”(2/25)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지난해 방북 당시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신 압록강대교가 오는 10월 착공될 전망이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은 오는 10월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 인입 도로 공사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신 압록강대교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이 25일 전했다. 심양만보(瀋陽晚報)도 이날 “신 압록강대교 건설이 올해 단둥시의 중점 업무에 포함돼 있다”며 “10월 착공을 목표로 측량과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앞서 자오렌성(趙連生) 단둥시장은 지난달 12-15일 열린 제14기 단둥시 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신 압록강대교가 10월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심양만보는 단둥 택시 기사들의 말을 인용, “최근 상하이에서 온 기술자들이 랑터우에서 측량을 하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랴오닝(遼寧)성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대표적 업체 8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6가지 작품을 후보작으로 결정했으며 입지도 확정했음.
- 설계에 따르면 신 압록강대교는 길이 20.4km, 폭 33m의 왕복 4차로의 현수교로 건설됨. 단둥은 북·중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대북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지만 양측의 교역은 1937년 건설된 낡은 압록강 철교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음.
-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이 늘어날 것에 대비, 신 압록강대교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원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냈음.

### ● 후진타오 주석 “중·조 친선 발전 방침 확고”(2/24)

- 후 주석은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을 만나 “지난해 두 나라는 외교관계 설정 60돌을 경축하고 ‘중·조 친선의 해’와 관련한 행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해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며 “중·조 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중앙방송이 보도했음.
- 후 주석은 “조선 동지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 강성대국 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음.
- 후 주석의 김영일 국제부장 면담에는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 등이 배석했고, 김 부장은 이에 앞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환담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 한편 후 주석은 지난 8일 방북한 왕자루이 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구두 친서에서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바 있어, 김영일 국제부장의 이번 방중 기간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 문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 북한의 노동당 국제부는 중국 공산당과 ‘당대당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로, 과거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중국 측과 사전 조율을 맡았음.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이후 4차례 중국을 방문했음.

### ● “北, 위화도·황금평 개발권 中에 넘겨”(2/23)

- 23일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단둥과 접경한 압록강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5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황금평이 5억 달러, 위화도가 3억 달러라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 북한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 협상을 거쳐 지난달 이들 중국 기업에 최종적으로 사업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권을 확보한 중국 기업이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 위화도와 황금평을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 외자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음. 러시아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러간 교역을 활성화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헤이허(黑河) 자유무역지대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북한의 구상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 위화도와 황금평은 북한이 2002년 경제특구로 지정, 대외개방을 추진하다 실패한 신의주에 속해 있음. 북한은 2006년에도 위화도와 비단섬을 연계한 신의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 불발됐음. 그러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양측이 신압록강 대교 건설에 합의하는 등 양측간 경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위화도와 황금평 자유무역지구 건설도 급물살을 탔음.
- 황금평은 단둥 신도시가 건설 중인 랑터우(浪頭)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는 11.45km<sup>2</sup> 크기의 섬임. 위화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토지가 비옥해 신의주의 대표적 곡창지대로 꼽힘.

### ● 中 “북·미 추가대화 지지·환영”(2/23)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북한과 미국의 추가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내달 초 방미 계획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중국은 다자 및 양자 대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핵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다자 및 양자 접촉을 갖는 것은 상호신뢰 증진과 양자관계 개선, 6자회담의 진전, 한



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속한 실현,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현재로선 김 부상의 방미 계획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당사국에 직접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음.

- 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4일 방중한다고 확인하면서 “그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6자회담과 다른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소개했음.

#### ● 中, ‘北에 세습반대’ 日 보도 부인(2/23)

- 중국 외교부가 23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에 개혁개방, 세습반대, 핵포기 등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부인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중국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하에 결코 다른 국가의 내정 및 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작년 5월 말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을 만나 개혁개방, 세습반대, 핵포기 등 3개항을 요구했다고 23일 베이징발로 보도했음. 아사히신문은 이 기사에서 북한이 작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을 극비 방중시켜 후계자 인정을 요청하고 핵실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지난해 6월에도 김정은이 중국을 극비리에 방중 했다고 수차례 보도한 바 있음.
- 그러나 친 대변인은 이날 김정은의 방중에 관한 보도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그는 “작년에도 내가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한 바 있다”면서 중앙(CC)TV의 춘제(春節) 특집 프로그램인 춘제완후이(春節晚會.춘완)의 코미디 코너에서 방송된 유행어를 활용, “관영보도는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나의 대답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라고 말했음. 친 대변인은 ‘김정은 방중’ 보도에 이례적으로 ‘07 소설과 같은 얘기’라며 사실무근임이라고 공식 확인했음.

#### 라. 일·북 관계

##### ● 日 “北 납치문제, 고교무상화와 무관”(2/23)

-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조총련계 고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판단재료가 아니다”고 밝혔음. 그는 일본내 외국계 학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 판단에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 역시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고 덧붙임.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고



교를 포함하느냐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본 문부과학상의 입장이어서 주목됨.

- 나카이 히로시(中井 浩)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지에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에게 “조총련계 학생들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북한)의 국민인 만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음.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임.
-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화는 국·공립 고교의 경우 수업료가 무료이며 사립고와 각종학교(외국계 고교 등)는 1인당 연간 12만 엔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日관방 “조총련계 학교 교과과정 점검”(2/22)**

-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화에 걸맞은 교과과정 여부를 포함해 문부과학성이 체크해야 한다”면서 “문부성의 성령(省令)으로 조총련계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음.
- 일본의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11일자 기사에서 북한이 조총련계 학교에 지원한 돈이 과거 50여 년간 460억 엔에 달한다고 보도하면서 “조총련계 학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강당에 걸고 민족 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마. 기타

● **北외무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2/27)**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공석웅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최근 북한과 중국이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교차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외무성 대표단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러시아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임.





### ● <남아공 압수 北무기류, 中다론편서 선적 주목>(2/26)

-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해 11월 압류한 북한의 탱크 부품이 중국 다론편(大連)항에서 선적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월 스트리트 저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역할의 이슈화에 나섰다.
- 신문은 “남아공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선 중국이 이번 운송문제에서 어떤 공식적인 역할을 했다는 시사가 없으며, 컨테이너 화물이 당국의 눈길을 피해 다론편을 경유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더 이상 언급은 피함.
- 신문은 중국이 대북 관계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체제 존립이라는 상충하는 이익간 균형을 잡으려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그러나 한국의 외교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과 다론편항간 운송 현황에 대해 신문은 해운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의 한 해운사가 매주 한 번 정도 대부분 다른 최종 목적지로 가는 컨테이너를 실은 정기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중국 세관 당국이 이들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검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북한 화물의 다론편항 수송은 주로 선박으로 이뤄지며, 다론편항까지 육로로 운송돼 거기서 배로 옮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 신문은 남아공이 압류한 다양한 탱크 부품 중엔 중국제 표기가 된 무선통신 장비도 있다고 특기함. 또한 남아공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화물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당국에 걸리지 않고 클랑항을 무사 통과한 사실을 지적하는 등 이번 사건 각 관련국에 관해 석연치 않은 점들을 일일이 제기했음.

### ● 남아공, 지난해 11월 北 무기수출품 압수(2/23)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1월 의심화물을 실은 콩고행 선박을 수색, 북한의 군용 T-54와 T-55 탱크 부품을 압수했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했음.
- 남아공은 지난주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화물의 운송업자는 북한 회사로 돼 있으며, 화물은 처음에 중국에서 선적된 뒤 말레이시아에서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선박으로 옮겨졌고, 선적서류상엔 “불도저 예비 부품”으로 기록돼 있었음.
- 여러 서방 외교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북한 무기의 수출과 대부분의 무기관련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 북한이 여전히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한 서방 외교관은 말했다.





-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남아공의 이러한 보고에 따라 북한, 콩고,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관련국에 서한을 보내 설명과 정보를 더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외교관들은 설명했다.
-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자사 선박에 의심 화물이 실렸다는 것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관들은 설명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위성락-보즈워스 회동..中방안 협의(2/25)

-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함.
-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중국으로부터 디브리핑받은 최근 북·중협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 공조방안에 대해 조율함.
- 특히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모종의 중재안을 한·미 양국에 제시하고 수용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한·미 양국의 선택이 주목됨.
-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로부터 최근 북·중간 협의를 비롯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국방 “美 방위책임체제 오래가길 원해”(2/24)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 이같이 말한 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국가대 국가간의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하면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 간 약속 문제를 해결될지 고심하고 있고 미측과도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현 북한 위협 상황에서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됨.

## 나. 미·중 관계

### ● 中国방부 “중·미 군사교류 중단 불변”(2/25)

- 황쉐핑(黃雪平)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발표를 통해 미국과 군사교류를 중단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미국은 양국 군 관계는 물론 양안간 평화적인 관계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최근 중국 정부와 군이 해킹 공격에 연관됐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조작”이라고 비난했음. 황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은 지금이라도 대만에의 무기판매 계획 등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미국은 그같은 행위가 중미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음.
- 앞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현지 시간으로 23일로 예정됐던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지방군구 사령관 등 군수뇌부의 미국 방문이 연기됐다고 확인했음.
-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H-60M 블랙호크 헬기 60대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114기, 오스프리급 소해정 2척, 지상 및 함상 발사가 가능한 첨단 하푼 미사일 12기, 다기능정보유통시스템 등을 대만에 판매키로 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고 중국은 즉각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군사교류 중단을 선언했음.

### ● “中, 軍 수뇌부 미국 방문 연기”(2/24)

-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반발해 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군사교류를 연기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23일 밝혔음.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지방군구 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말했음.
- 한 관리는 “중국이 당분간 중단하려고 하는 (군사교류 관련) 행사들이 몇개 더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행사도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방침에 반발해 군 수뇌부의 미국 방문을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 태평양사령관의 중국 방문 계획도 취소됐음.
- 이 같은 국방부 관리들의 전언에 대해 브라이언 휘트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측으로부터 “아직 주목할만한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국방부 관리도 “중국은 양국간 군사교류를 불만을 표출하는 데 자주 이용해왔다”며 “우리는 중국 측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음.

● 보즈워스, 우다웨이와 “유용한 의견 교환”(2/2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유용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24일 밝혔음.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우다웨이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6자회담의 빠른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中 “미·중 관계 훼손은 美 책임”(2/23)

- 중국 외교부는 23일 미·중 관계가 훼손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하고 고의로 미국 지도자와 달라이 라마의 회견을 강행하는 등의 원인으로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친 대변인은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민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음.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회사에 대한 제재 계획과 관련, “최근 발표한 대로 미국 회사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친 대변인은 또 구글 사태와 관련해 “최근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해킹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들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음.
- 뉴욕타임스(NYT)는 구글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상하이(上海) 교통(交通)대학과 직업기술학교인 란상(藍翔) 고급기공학교로 지목됐다고 보도해 해당학교를 비롯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

● 美, 석유외교로 中에 이란 제재 동참 설득(2/23)

- 미국은 중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에 대중국 원유 판매를 더욱 늘릴 것을 요청하는 이른바 ‘석유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중국 측 분석이 나왔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는 23일 파이낸셜 타임스, 레바논의 다르 알-하얏트지 등을 인용,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순방에 나선 것은 이 국가들에 대해 대중국 원유 판매를 증가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음.



- 중국이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늘어나면 이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 이란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임. 사우디는 미국의 요청으로 대중국 원유 수출을 12%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대중국 원유 수출 쿼터를 각각 10%와 50% 증가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상하이국제연구소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리웨이젠 주임은 “중국은 원유 수입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석유외교를 통해 중국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가하는 미국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이 서방의 이란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란 석유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 한편 핵프로그램 개발로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다. 미·일 관계

##### ● “4월 미·일 정상회담 협의중” <요미우리> (2/28)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4월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양국 정부가 협의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음. 4월12~13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전보장정상회의를 이용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협조를 확인하는데 치중하고,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후텐마 문제가 거론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본은 3월부터 미측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본격 교섭해 5월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일 정상회담을 꺼리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일본이 ‘유엔 차원의 이란 제재’에 선뜻 지지를 표명하지 않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 라. 기타

##### ● 러 상원의원 “남북 통일은 시간 문제” (2/25)

- 러시아 정계의 ‘거물’로 알려진 아슬란벡 이슬라하노프(68) 연방의회(상원) 의원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말해 주목됨. 이슬라하노프 의원은 25일(한국시간) 모스크바 시내 자택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양국이 통일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냐에 따라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음.



- 그는 이어 통일 후 한국을 이끌 지도자에 대해 언급,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서 “하지만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인구가 많은 쪽에서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그는 또 “북한의 젊은이들은 지배 계급이 만들어 놓은 체제 아래에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외에 다른 것은 접하기도 어렵다”면서 “남북통일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북한 젊은이들이 알게 되면 심각한 회의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음.
- 한편 아슬라하노프 의원은 1992년 북한에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들을 소개했음. 그는 “당시 김정일과 통일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는데, 김정일은 ‘국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남이든 북이든 동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남북 통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담담하고 노련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 대만 “美와 F-16 구입협상 진행중”(2/23)

- 대만은 F-16 전투기 구입협상을 미국과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이 23일 밝혔음.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우 원장은 “미국 측이 F-16 전투기에 대해 ‘노’(No)라고 말하지 않았고 양측은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고려하고 심사하고 있다”며 “대만은 전투기 구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원장 실은 우 원장이 이날 여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확인했음.
- 대만의 전투기 구입추진에 미국은 중국측 반발을 우려해 판매결정을 미뤄오고 있음. 미국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만 전투기의 대중(對中) 방공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F-16 판매에 명분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음.
- 우 원장의 이번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간 면담, 구글의 중국 철수 위협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 지속되는 갈등에 또다른 ‘자극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